

한국에서 비교정치 연구의 변화와 발전 분석(1955-2020): 연구자를 중심으로

신명순 ■ 연세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5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에서 나타난 변화와 발전을 연구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중요한 연구 결과는, 1955년부터 1980년까지는 연구자 수와 연구 논문 편수가 많지 않았으나, 1981년부터 2000년 기간에는 연구자 수와 연구 논문 편수가 많이 증가하였으며 2001년 이후에는 연구자 수와 연구 편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전체 기간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면, 한 연구자가 10년 동안 가장 많이 발표한 연구 논문 편수가 1980년까지는 6편에서 8편이었고 1981년부터 2000년 기간에는 8편에서 9편이던 것이, 2001년부터 2020년 기간에는 37편과 28편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연구자가 오랜 기간 계속해서 많은 연구를 발표하였는지를 분석하면, 10년 동안 많은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 중에서 다음 10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많은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의 비율이 1970년대에는 36.6%이던 것이, 1980년대에는 25%, 1990년대에는 12.73%, 2000년대에는 20.75%로 저조하였으나 2010년대에는 45%로 대폭 증가하였다.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연구자의 수와 논문 편수가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고 2000년 이후에는 많은 연구자가 오랜 기간 계속해서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비교정치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주제어: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 연구자, 1955-2020년 기간, 국가·지역 연구

I. 서 론

한국에서 독립 분리된 분야로 정치학과 또는 정치외교학과가 각 대학에 처음 설치된 것은 1946년이였다(김계수 1967, 169)1). 비교정치학에 관한 교육은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E-mail: msshin@yonsei.ac.kr)

1946년부터 1949년 사이에 서울대에서 현대정부형태론, 비교정부론, 각국정부 형태론, 각국정부조직론 등의 강의가 개설되었고, 연세대에서는 민주정부론, 의회론 과목으로 비교정치 강의가 개설되었다(구범모 1967, 54-55)²⁾. 비교정치 관련 과목에 비교정부론이 아니라 비교정치론³⁾이라는 이름으로 강좌가 개설된 것은 1965년으로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비교정치론(I)과 비교정치론(II) 2개 과목을 개설하였다(구범모 1967, 66). 대학에 비교정치 관련 과목이 개설된 1946년부터 계산하면 한국에서의 비교정치학 교육은 76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에 비하여 비교정치 분야 학술논문이 처음 학술논문집에 게재된 것은 1955년으로⁴⁾ 비교정치에 관한 연구 논문의 발표는 교육의 시작보다 9년이 늦었다⁵⁾. 이때 이후 한국에서 비교정치 연구의 역사는 2022년 현재 67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가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⁶⁾. 저자는 한국에서의 비교정치 연구에 관한 지적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비교정치 분야 학술논문이 최초로 발표된 1955년부터 2020년까지의 65년 기간을 대상으로 비교정치 연구가 진전되어 온 과정과 추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변화와 발전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비교정치 연구의 분석에서는 연

-
- 1) 이 해에 창설된 국립 서울대학교에 정치학과가 설치되었고 동시에 고려대와 연세대가 대학교가 되어 정치학과 또는 정치외교학과가 설치되었다.
 - 2) 1951년부터 1955년 사이에 서울대에는 의원내각제정부론, 의회론, 민주정부론, 대통령제정부론, 아세아각국정치론 등의 비교정치 분야 과목이 개설되었고, 고려대와 연세대, 경희대에는 비교정부론이란 제목의 비교정치 과목들이 개설되었다. 이 시기까지 비교정치 과목은 비교정부론이라는 제목으로 개설되었고 비교정치라는 이름을 붙인 과목은 연세대의 비교정치기구론이 유일하였다.
 - 3) 비교정부(comparative government)는 국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의 정부 기구와 그들의 기능, 그리고 정당, 압력단체 등의 집단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를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비교정치(comparative politics)는 정부와 그 기구들뿐만 아니라 부족, 공동체(communitiy), 조직, 노동조합 등 더 넓은 범위에서 발생하는 정치행위에 관한 연구를 의미한다(Chilcote 1981, 3).
 - 4) 처음 게재된 비교정치 논문들은 김기범(1955), 김영두(1955), 김형수(1955), 박일경(1955), 서원우(1955), 조효원(1955) 6편이다.
 - 5) 한국에서 비교정치 연구가 늦었던 이유는 “대학교육 자체가 처음으로 일시에 시작되었고 또한 그것도 미군정하에서 이루어진 까닭에 정치학의 연구에 대해서 개별적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었을 것”(김영국 1977, 41)이며 더욱이 “6·25동란, 1·4후퇴, 부산 피난, 군 복무 또는 피난 등으로 정치학계가 공백 상태였기 때문에 정치학계가 제대로 활동을 개시한 것은 실질적으로 1954년 서울환도 이후였다”(서중석 1959, 187-188).
 - 6) 그동안 한국에서의 비교정치 연구에 관한 연구 동향을 다룬 선행연구는 몇 편이 있었으나 분석 대상 시기가 단편적이거나 제한적이었고 분석자료가 체계적이지 않아 한국에서의 비교정치 연구 역사와 발전에 관한 체계적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구하는 주제,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국가나 지역, 연구에 사용한 방법 등이 중요하다. 그러나 분석대상 기간이 오랜 기간이고 이러한 주제들에 관한 분석을 한편의 논문에 모두 포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비교정치 연구의 주제, 대상국가, 방법론 등에 관한 연구는 차후의 논문에서 다루기로 하고 본 논문에서는 비교정치 연구 논문을 저술한 연구자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65년의 기간 동안에 비교정치 분야 연구자들 중에서 누가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였고 시기별로 어떤 변화와 특징이 있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비교정치 연구 역사를 파악하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비교정치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학문적 열성과 학문적 풍토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65년의 비교정치 연구 역사에서 많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비교정치학의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들을 시기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비교정치 연구의 과거 업적을 밝힐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비교정치 연구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여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65년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 비교정치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여 한국에서의 비교정치 발전에 기여하였던 연구자는 누구였으며 이들은 얼마나 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연구활동을 계속하였는가를 분석한다. 연구자는 많은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단기간(예를 들면 10년 이내)에 그치고 그 이후에는 논문 발표가 중단되는 것보다 20년 또는 30년의 기간 동안 꾸준히 많은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들의 수가 많아진다면 한국에서의 비교정치 연구는 더욱 활성화 되고 연구 풍토와 연구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역사에서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비교정치 연구의 역사를 정리하는데도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분석대상 기간인 1955년부터 2020년의 전체 기간을 한 시기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10년의 시기⁷⁾ 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비교정치 연구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와 추세 그리고 특징을 분석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전체 기간을 1955년부터 1970년(1950·60년대), 1971년부터 1980년(1970년대), 1981년부터 1990년(1980년대), 1991년부터 2000년(1990년대), 2001년부터 2010년(2000년대), 2011년부터 2020년(2010년대)의 6

7) 1950년대에는 1955년부터 비교정치 논문이 발표되었고 논문 편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첫 시기는 1955년부터 1970년까지의 16년 기간을 분석한다. 1971년부터 2020년까지는 10년 기간을 단위로 분석한다.

개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선행연구에 관한 분석을 기반으로 연구계획을 밝힌다. 3장에서는 1955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비교정치 논문 편수에서 양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한다. 4장에서는 1950·60년대와 1970년대의 기간에 비교정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며 5장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기간에 비교정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변화를 분석한다. 6장에서는 2000년대와 2010년대의 기간에 비교정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변화를 분석한다. 7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힌 비교정치 연구의 시대적 변화와 특징을 정리하면서 65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에서 어떤 발전이 이루어졌는가를 논의한다. 한국에서 비교정치 연구 결과가 처음 학술논문으로 발표되기 시작한 이후 현재의 연구 상황까지를 분석한 연구는 그동안 공백으로 남아있던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채우는 공헌을 할 것이다.

Ⅱ.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계획

1.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하는 기간인 1955년부터 2020년까지의 65년을 대상으로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비교정치 연구자는 누구였는가를 분석한 논문은 한 편도 없다. 그러나 65년 기간 중의 특정한 시기를 대상으로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몇 편 있으며, 비교정치의 연구대상인 특정 지역을 연구한 연구자들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있다. 1967년에 발표된 구범모(1967)의 논문은 1945년부터 1966년까지의 20년 기간을 대상으로 비교정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는 이 시기 비교정치 연구의 특징을 국가학의 추상적 논의, 구미 정치제도의 연구, 후진국 정치의 연구라는 3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당시의 비교정치 교육, 연구 방법, 정치 현실과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구범모의 논문은 1966년까지의 비교정치 연구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하였으나 학술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또 학술논문에 관한 구체적 조사와 분석보다는 전반적인 연구 흐름을 파악하는데 그쳤다. 김행자(1978)의 “한국 비교정치 연구의 현재와 미래: 이상주의적 정치학도의 하나의 견해” 논문은 정치학자 582명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발표한 비교정치

논문을 비교정치이론, 정치발전, 각국정부론, 한국정치론, 비교 방법의 5가지로 분류한 후 분야별로 비교정치 전공자와 비교정치 비전공자가 집필한 논문의 편수를 계산하였다. 김행자는 비교정치 전공자보다는 정치학의 다른 분야 전공자가 비교정치 논문을 더 많이 발표하였기 때문에 이 시점까지 한국의 비교정치학은 하나의 뚜렷한 분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최명(1979)은 “한국의 비교정치학” 논문에서 해방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30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비교정치학자들의 연구업적을 논의하였다. 그는 이 기간의 비교정치 연구업적은 비교라는 어휘가 타당하지 않을 정도로 법적·제도적 방법으로 개별 정치체계의 특성을 아무런 연관 없이 기술하는 수준이었고 역사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고 지적하였다. 연구의 수준도 구미 학자의 업적을 소개하거나 잘해야 외국학자의 저서나 논문을 나열하면서 인용하는 ‘인용의 나열’이었다고 지적하였다(최명 1979, 43). 그러면서도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행태주의에 관한 소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행태주의에 입각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발전도상지역 정치에 관한 이론서들이 발표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1960년대 이후에는 비교정치 연구에서 지역연구와 공산권 연구자의 수가 증가하였고 연구도 활발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최명의 이러한 결론들은 이 시기에 발표된 비교정치 논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내린 결론이 아니라 저서나 역사 등의 단행본을 중심으로 내린 결론이었다. 2008년에 발표된 박기덕의 논문은 1945년부터 2004년까지 60년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를 다룬다고 하였으나 1945년부터 1972년까지를 단편적으로 다루는 정도였다. 이 논문은 이 기간에 이루어진 비교정치 연구 논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않았고 이 시기의 비교정치 연구 상황을 분석하였던 구범모(1967)와 김계수(1969)를 인용하는 수준에서 피상적이고 비체계적으로 논의하는 수준이었다.

신명순(2013)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10년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의 비교정치 논문 1,833편을 분석하면서 한국 비교정치 연구의 대상 국가와 지역, 연구의 주제, 논문이 게재된 논문집, 연구자를 조사하였다. 그의 논문은 비교정치 논문 1,833편의 연구자를 조사하여 누가 얼마나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는가를 조사한 후,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상위 55명의 연구자와 이들이 발표한 논문 편수, 논문이 연구대상으로 삼은 국가나 지역을 조사한 점에서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려는 비교정치 연구자 중심의 분석과 가장 비슷하다. 그러나 그의 논문은 분석대상 기간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10년에 불과하기에 그 이전과 이후의 시기에 비교정치 연구가 어떤 연구자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비교정치 연구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에 관한 전반적 분석은 아니지만, 비교정치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중동 지역 연구현황을 연구자를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으로는 안정국(2015)의 연구가 있다. 이 논문은 198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중동학회논총』,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아랍어와 아랍문학』, 『중동연구』, 『중동문제연구』, 『지중해지역연구』 6개 논문집에 발표된 2,280편 논문을 집필한 304명 중에서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132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구 분야, 출생 연대, 연구자 배출 교육기관, 국외 박사 현황, 다수 논문 발표 연구자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정치학이나 비교정치학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 분야의 연구자를 조사하였고 주로 연구자의 배경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으나, 학문의 연구현황을 연구자를 중심으로 분석한 특징이 있다.

위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이나 체계적이지 못한 점을 보완하는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면에서 학문적 공헌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1955년부터 2020년까지 65년 기간 동안 한국에서 발표된 모든 비교정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기에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에 관한 총체적 역사를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는 지금까지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를 분석한 어떤 연구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국 비교정치 연구의 변화와 발전을 분석하는 점이다. 본 연구는 65년의 한국 비교정치 연구역사에서 어느 시기에 어떤 연구자가 얼마나 많은 논문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발표하였는가를 밝혀 누가 한국에서의 비교정치 연구를 주도하였고 비교정치학 발전에 기여하였는가를 구명하는 학문적 공헌을 할 것이다.

2. 연구계획

본 연구에서 분석할 대상은 1955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비교정치 분야 논문들이다. 어떤 연구가 비교정치 연구이고 어떤 학자가 비교정치학자인가에 관하여서는 미국 정치학에서도 논란이 많다. 비교정치 연구의 범위에 어떤 논문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기준은 위아르다(Wiarda 1993, 12-15)가 제시한 6가지 유형의 연구를 비교정치 연구 범위에 포함시킨다. 첫째는 한 국가의 한가지 사례를 연구하는 것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다른 국가에도 비교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처럼 일반적 행태나 추세를 분석하는 연구는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한 국가의 사례를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역사연구와 차이가 있다. 둘째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

를 연구하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는 비교 연구의 핵심이다. 셋째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유럽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지역연구이다. 한 지역에 공통된 점이 많다면 연구자는 이들을 상수로 두고 다른 특징의 영향을 검증할 수 있다. 연구자는 전체 지역 또는 지역 내 국가들 사이의 비교를 바탕으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넷째는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와 중동의 군부 정치를 연구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는 유엔이나 세계은행 등의 기관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이다. 이런 연구는 전 세계의 국가들이나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주제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여섯째는 주제 중심의 연구이다. 예를 들면 국가의 변화하는 역할이나 민주화 과정과 같은 주제를 비교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 연구를 비교정치 연구에 포함시켜 분석자료를 수집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자료는 1955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학술논문집에 발표된 논문이다.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학술논문집은 한국정치학회나 한국국제정치학회 등과 같은 전문 학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 각 대학과 대학 부설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 그리고 사회의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사한 학술논문집은 1955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발간된 277종이며 목록은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 분석자료의 수집은 277종의 학술논문집에 게재된 논문들을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검색하면서 그중에서 비교정치 논문만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한 분석자료는 6,753편의 논문이었고 이 논문들을 집필한 연구자의 수는 3,200명이었다. 본 논문은 이 3,200명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발표된 비교정치 연구 논문들의 시기적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대상 기간에 발표된 비교정치 논문 편수를 조사한다. 비교정치 논문이 처음 발표된 1955년부터 매년 몇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숫자가 증가, 정체, 감소하였는지를 조사한다. 이 조사는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가 계속해서 활성화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대적으로 보여줄 것이며 거기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를 밝혀줄 것이다. 다음으로 분석대상 기간에 비교정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의 수가 변화하는 추세를 조사하여 비교정치 연구자의 수가 증가하였는지, 증가하였으며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지를 조사한다. 또한 연구자들이 10년의 기간에 몇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는가를 조사하여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연구자의 연구력이

높아졌는지를 밝힌다. 또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들은 10년의 기간별로 몇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들은 다음 10년의 기간에도 계속해서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에만 활발한 연구를 하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연구에 소홀해서 발표 논문의 편수가 감소하는지를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는 한국에서 비교정치 연구의 연륜이 쌓일수록 연구자의 연구력도 비례해서 향상되었는지를 밝혀줄 것이며,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발전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으나 비교정치 논문을 집필한 연구자의 수가 3,200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에 관한 모든 분석을 논의하기에는 논문 지면의 제약이 있다. 이에 저자는 비교정치 논문 발표자 중에서 다수 논문을 발표한 상위 10%(8)에 포함되는 연구자만을 본 논문에서 조사할 것이며 개별 연구자에 관한 언급은 다수 논문 발표자 상위 5%에 포함되는 연구자로 한정한다.

Ⅲ. 1955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비교정치 논문 편수

한국에서 비교정치 논문이 처음 발표된 195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발표된 논문 편수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정치 연구 논문 편수의 변화 추세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 기간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논문 발표 편수를 조사한다⁹⁾. 이에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5년부터 1970년(아래에서는 이 기간을 1950·60년대로 기술한다), 1971년부터 1980년(1970년대), 1981년부터 1990년(1980년대), 1991년부터 2000년(1990년대), 2001년부터 2010년(2000년대), 2011년부터 2020년(2010년대)의 6개 시기로 분류하여 조사한다.

-
- 8) 이 분석은 10년 기간을 단위로 다수 논문 발표자의 상위 10% 연구자를 조사한다. 그러나 10년의 기간 동안, 같은 편수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가 여러 명 있어 10년 기간별로 상위 10%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에 1955년부터 1970년까지는 상위 7.97%, 1971년부터 1980년까지는 14.81%, 1981년부터 1990년까지는 10.93%, 1991년부터 2000년은 9.12%,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10.3%,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10.37% 이내에 드는 연구자만 포함하였다.
- 9) 비교정치 논문이 1955년에 처음 출판되었고 1950년대에 출판된 논문 편수는 58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1950년대는 1961년부터 1970년까지의 1960년대 기간과 합쳐 16년을 1950·60년대로 표기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0·60년대에는 논문 편수가 242편(58편+184편)인데 1970년대는 305편으로 논문 편수가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1980년대에는 논문 편수가 902편으로 증가하여 1970년대보다 3배 정도나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는 논문 편수가 1,063편이 되어 1980년대보다 161편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1980년대에 시작된 추세가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되었다. 이와 달리 2000년대에는 논문 편수가 2,142편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0년대에 비하면 두 배가 증가하였고, 2010년대에는 2000년대에 비하여 43편이 감소하였으나 2000년대의 논문 편수와 큰 차이가 없었다. 10년 기간을 단위로 조사한 비교정치 논문 편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추세는 1955년부터 2020년까지의 65년 기간 동안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는 1950·60년대와 1970년대, 1980년대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와 2010년대의 세 시기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비교정치 연구를 10년 기간 단위별로 조사하면서도 동시에 비슷한 추세를 보인 1950·60년대와 1970년대, 1980년대와 1990년대, 2000년대와 2010년대를 각기 하나의 단위로 묶어 세 시기에 나타난 비교정치 연구의 다양한 특징과 변화를 분석한다.

<표 1> 비교정치 논문의 연도별 발표 편수(1955년-2020년)

연도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합계
논문					6	10	6	12	15	9	58
연도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논문	6	18	14	12	20	15	19	33	26	21	184
연도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논문	27	33	28	25	20	28	28	27	47	42	305
연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논문	54	67	73	128	87	105	100	113	80	95	902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논문	77	89	83	92	87	111	133	125	128	138	1063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논문	169	168	209	231	223	244	224	233	210	231	2142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논문	262	284	232	222	200	194	188	185	175	157	2099

*출처: 저자가 작성한 것이다.

첫 번째 시기인 1950·60년대와 1970년대의 26년 기간에는 547(58+184+30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시기 동안 1년 동안에 발표된 비교정치 논문의 편수는 평균 21.8편이었다. 두 번째 시기인 1980년대와 1990년대의 20년 기간에는 1,965(902+1,06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1년에 평균 9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비교정치 논문 발표 편수가 첫 번째 시기에 비하여 두 번째 시기에 4.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는 1980년부터 양적인 면에서 괄목한 성장을 보였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는 “비교정치 전공자보다는 정치학의 다른 분야 전공자가 비교정치 논문을 더 많이 발표하였기 때문에 이 시점까지 한국의 비교정치학은 하나의 뚜렷한 분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라는 김행자(1978)의 지적은 1980년대부터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런 점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20년 기간은 한국의 정치학에서 비교정치학 분야와 비교정치 연구가 확고한 기반을 잡은 시기라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시작한 한국 비교정치 연구의 변화는 2000년대와 2010년대에도 계속되면서 더욱 발전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시기에 발표된 비교정치 논문 편수는 4,241(2,142+2,099)편으로 이 시기에 1년에 발표된 평균 논문 편수는 212편이었다. 이러한 증가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1년 평균 98편보다도 2.16배가 증가한 것으로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는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 정착의 단계를 지나 활발한 연구가 지속되고 많은 편수의 논문이 발표되는 전성기에 들었음을 나타낸다. 다음 4, 5, 6장에서는 한국 비교정치 연구에서의 변화와 활성화가 어떤 연구자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났는가를 분석한다.

IV. 1950·60년대와 1970년대의 비교정치 연구자 분석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에서 1950·60년대와 1970년대에 발표된 비교정치 논문은 모두 242편이었다. 이 논문들은 한 명의 연구자가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개별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 편수는 다음과 같다. 1950·60년대에 6편을 발표한 연구자는 1명이었고, 5편을 발표한 연구자는 4명, 4편을 발표한 연구자는 6명이었다. 3편을 발표한 연구자는 15명, 2편을 발표한 연구자는 37명이었고 75명은 1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242편의 비교정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의 수는 138명이었다. 이들 138명 중에서 6편을 발표

한 하경근, 5편을 발표한 김영준, 정요섭, 정윤무, 차기벽, 4편을 발표한 박일경, 서원우, 윤근식, 이용필, 장을병, 조일문 11명은 다수 논문 발표자 상위 7.97%에 포함되는 연구자로 이들은 1950·60년대에 활발한 연구를 바탕으로 많은 비교정치 논문을 발표하면서 비교정치 연구를 이끌었던 연구자들이다.

1970년대에는 비교정치 논문이 305편 발표되었다. 이 논문들을 연구자별로 보면 8편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가 1명이었고 5편을 발표한 연구자는 3명, 4편을 발표한 연구자는 7명이었다. 3편을 발표한 연구자는 17명, 2편을 발표한 연구자는 47명이었고 1편의 논문만 발표한 연구자는 114명이었다. 이들을 합하면, 1970년대에 비교정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는 모두 189명이었다. 1970년대에 다수 논문 발표 상위 14.81%에 드는 연구자는 윤경우, 김태창, 장을병, 정윤무, 구병삭, 김영수, 김인곤, 손양수, 윤병기, 차기벽, 허재일, 권영성, 김광웅, 민만식, 박경수, 박주황, 안병영, 유종해, 이상구, 이택휘, 진덕규, 최명, 하경근, 한배호, 한용희, 허경, 허종옥, 홍양표 28명이었다. 이들은 1970년대에 활발한 비교정치 연구를 하였고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들이다.

<표 2>를 보면, 1950·60년대에 다수 논문 발표 상위 7.97%에 포함된 11명의 연구자 중에서 1970년대에도 상위 14.81%에 포함된 연구자는 정윤무, 장을병, 차기벽, 하경근의 4명으로 36.36%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비교정치 연구가 시작된 이후 1980년까지 활발한 연구를 하면서 비교정치 연구를 주도하였던 핵심 연구자는 이들 4명이었음을 나타낸다. 정윤무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여론, 전파매체 등의 주제에 관한 논문을 집중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장을병은 정당, 대중사회, 대중운동,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차기벽은 1961년에 후진 지역의 민족혁명을 연구한 논문(1961)을 처음 발표한 이후 신생국정치, 신생국의 민주주의, 근대화, 민족주의에 관한 논문을 주로 발표하였다. 하경근은 1963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정책에 관한 논문(1963)을 처음 발표한 이후 후진국의 근대화, 민족주의, 인테리겐자, 군과 정치, 제3세계에 관한 논문들과 아프리카의 민족주의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외에 1970년대에 가장 많은 8편의 논문을 발표한 윤경우는 1972년에 발표한 논문(1972)부터 1978년까지 아프리카의 정당, 군과 정치, 정치사상이나 이데올로기 등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윤경우는 아프리카정치에 관한 관심이 저조하고 아프리카에 관한 자료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기에 아프리카정치를 연구한 아프리카 전공자였다.

<표 2> 1955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기간별로 다수의 비교정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

기간	다수의 비교정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 순서
1950·60년대 (상위 7.97%)	6편(하경근), 5편(김영준, 정요섭, 정윤무, 차기벽), 4편(박일경, 서원우, 윤근식, 이용필, 장을병, 조일문) ---연구자 수: 11명
1970년대 (상위 14.81%)	8편(윤경우), 5편(김태창, 장을병, 정윤무), 4편(구병석, 김영수(2+2) ¹⁰⁾ , 김인곤, 손양수, 윤병기(2+2), 차기벽, 허재일), 3편(권영성, 김광용, 민만식, 박경수, 박주황, 안병영, 유종해, 이상구, 이택휘, 진덕규, 최명, 하경근, 한배호, 한용희, 허경, 허종욱, 홍양표) ---연구자 수: 28명
1980년대 (상위 10.93%)	8편(이정복), 7편(고성준, 구병석, 김인곤(2+5), 염홍철), 6편(권무수, 김승흠, 김주희, 민만식, 서진영, 유승남, 정윤무), 5편(강석영, 김갑철, 김기우, 김정계, 김홍구(2+3), 박상섭, 변창구, 신기현(4+1), 안병만(4+1), 안성호, 어수영, 윤덕희, 이계희, 이성형(4+1), 이신일, 장공자, 장명봉, 차기벽, 최명, 하용출, 홍순호, 황규희(3+2)), 4편(김달중, 김종명, 김호진, 박승재, 박종성, 배성동, 배찬복, 성낙인, 신명순, 안병영, 윤용희(3+1), 이대우, 이문규, 이상민, 이상식, 전득주, 정용길, 조정남, 최요환, 최한수, 한배호) ---연구자 수 55명
1990년대 (상위 9.12%)	9편(박봉규, 이성형(8+1), 정진민), 8편(안성호(7+1), 윤덕희, 이인성), 7편(강원택(6+1), 노태구, 서경교, 유지훈(6+1), 이규영, 최수경), 6편(강명구, 강휘원, 권무수, 김소중(5+1), 김장권(4+2), 김정계, 박수현, 박찬욱, 류정열, 이병도, 이은국, 정영국, 정윤무), 5편(강문구(4+1), 고상두, 고세훈, 고재남, 권문술(4+1), 김경숙, 김재철, 박은홍, 백창재, 서보근, 손병권, 신명순(4+1), 양길현, 양동훈, 양승윤, 양승함, 이상식, 이영우(1+4), 이은구(4+1), 이항재, 이홍섭, 임성호, 장공자, 전홍찬(3+2), 조수성, 진영재(4+1), 차상호, 하상식, 홍순남(3+2)) ---연구자 수: 53명
2000년대 (상위 10.3%)	37편(이동윤(32+5)), 23편(고선규, 조영남(21+2)), 21편(가상준(19+2)), 19편(이옥연), 18편(이현우(16+2)), 17편(이정남(16+1), 박철휘), 16편(서경교, 손병권(14+2), 안승국(12+4), 이기완, 이이범(15+1), 정병기(15+1)), 15편(박은홍(13+2)), 14편(김면희(13+1), 김성진, 김종범, 신유섭(13+1), 유왕종(12+2), 최정욱), 13편(유달승, 임성호(12+1)), 12편(강봉구, 김홍구(11+1), 남종호, 박광득, 유진숙), 11편(엄기홍(8+3), 이준환, 장지향, 홍재우(8+3)), 10편(금상문(9+1), 김신규, 문우진, 서현진(8+2), 안성호, 윤용희(9+1), 이규영(6+4), 이상훈, 조성대(8+2), 조수성, 한병진), 9편(강원택(7+2), 이순주, 정상률(7+2)), 8편(고경희(5+3), 광진영(5+3), 김욱(6+2), 김인성, 김준석(동국대), 박종평, 서상현, 신두철, 안병진, 유성진, 이민자, 이병도, 이재현(5+3), 장덕준(7+1), 전병곤(7+1), 정연정, 최영철(7+1)), 7편(강휘원, 고정민(6+1), 고상두(4+3), 권혁용(5+2), 김용복(6+1), 김형철(6+1), 박정호(6+1), 서동주, 송석원, 안용훈, 오향미, 우평균(6+1), 이동률, 조이환, 조진만(4+3), 한양환, 황인원(6+1)) ---연구자 수: 80명

2010년대 (상위 10.37%)	28편(정병기), 22편(오창룡(17+5)), 20편(고상두(11+9)), 19편(조영남, 황병하), 18편(고선규(13+5)), 17편(권혁용(3+14), 김민회(12+5), 김용민(14+3), 조원빈(11+6)), 15편(김신규, 지은주(9+6)), 14편(김종범(13+1), 서경교(13+1), 홍미정), 13편(김성진, 이광수, 이양호(7+6), 장선화(9+4), 한의석), 12편(박은홍, 이옥연(11+1), 하세현(5+7), 한병진(11+1)), 11편(서정건(3+8), 손병권(9+2), 안용훈, 유은하(10+1), 이정남, 정상률(6+5), 주장환(10+1)), 10편(김민정(6+4), 김홍구(8+2), 장준영, 최은봉(1+9), 홍태영), 9편(경제회(8+1), 박경미(7+2), 박정오, 신재혁(7+2), 유진숙, 윤은기(6+3), 이대진(4+5), 이주경, 장세호, 정희옥(3+6), 조홍식, 황인원(5+4)), 8편(김영철(7+1), 김지영(7+1), 문우진(6+2), 서지원(5+3), 송경재(6+2), 유성진(7+1), 이이범, 이종곤, 이한수, 이한우, 장승진(3+5), 장윤미, 정주연(6+2), 정진민(5+3)), 7편(강신구(5+2), 김남국(4+3), 김형철(6+1), 백우열(4+3), 신두철(5+2), 신봉수, 우평균, 이규영(4+3), 이동윤(6+1), 이민자, 이병재(6+1), 이선필, 이종희(7+1), 이희옥(3+4), 임성호(6+1), 장지향(6+1), 정연식, 홍재우(4+3)), 6편(강우진, 김용복, 민태은(3+3), 박찬기(5+1), 박철희, 백창재(4+2), 서정민(한국외대), 안정국(2+4), 우준희(1+5), 윤종빈(0+6), 이대진(0+6), 이선우(5+1), 이성수, 이소영, 이재목(4+2), 이현우(4+2), 장병옥(한국외대 5+1), 장혜영(3+3), 정주영, 조성대(4+2), 조희정(3+3), 한정훈(5+1), 현승수 ---연구자 수: 103명
--------------------------	--

*출처: 저자가 작성한 것이다.

V.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비교정치 연구자 분석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에 발표된 비교정치 논문은 902편이었다. 이 논문들을 연구자로 분류하면 8편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가 1명이었고 7편을 발표한 연구자는 4명, 6편을 연구한 연구자는 7명, 5편을 발표한 연구자는 22명, 4편을 발표한 연구자는 21명, 3편을 발표한 연구자는 33명이었다. 2편을 발표한 연구자는 97명이었고 1편의 논문만 발표한 연구자는 318명이었다. 이 기간에 비교정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의 전체 수는 503명이었다. 이 연구자 수는 1970년의 189명에 비하면 2.66배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와 연구자의 수가 1980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활성화되었음을 나타낸다.

1980년대에 비교정치 논문을 발표한 503명의 연구자 중에서 다수 논문 발표

10) 괄호 안의 숫자에서 앞의 숫자는 단독 논문의 숫자이며 뒤의 숫자는 공동 저자인 논문의 숫자이다. 공동 저자의 경우 저자의 수가 2명이나 그 이상인 것에 관계없이 개별 연구자 모두에게 한 편의 논문 수를 부여하였다.

자 상위 10.93%에 포함된 연구자들은 모두 55명으로 명단은 <표 2>와 같다. 이들 연구자는 8편을 발표한 이정복, 7편을 발표한 고성준, 구병삭, 김인곤, 엄홍철, 6편을 발표한 권무수, 길승흡, 김주희, 민만식, 서진영, 유승남, 정운무, 5편을 발표한 강석영, 김갑철, 김기우, 김정계, 김홍구, 박상섭, 변창구, 신기현, 안병만, 안성호, 어수영, 윤덕희, 이계희, 이성형, 이신일, 장공자, 장명봉, 차기벽, 최명, 하용출, 홍순호, 황규희, 4편을 발표한 김달중, 김종명, 김호진, 박승재, 박중성, 배성동, 배찬복, 성낙인, 신명순, 안병영, 윤용희, 이대우, 이문규, 이상민, 이상식, 전득주, 정용길, 조정남, 최요환, 최한수, 한배호 55명으로 1980년대에 활발한 연구를 하여 많은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들이다.

1950·60년대와 1970년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면서 1980년대에도 다수 논문을 발표하여 상위 10.93%에 포함된 연구자는 정운무와 차기벽 두 명이였다. 정운무는 1950·60년대에 5편, 1970년대에 5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1980년대에도 6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30여 동안 16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였다. 차기벽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어 1980년대에도 일본에 관한 논문 2편과 민족주의에 관한 논문 2편 등을 발표하였다. 이들 두 연구자는 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지속한 점에서 1950·60년부터 1980년대까지 비교정치 연구의 모범을 보인 대표적 학자들이였다.

이들 두 연구자 외에, 1970년대에 다수 논문 발표 상위 연구자에 포함되었던 28명 중에서 1980년대에도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다수 논문 발표 상위 10.93%에 든 연구자는 김인곤, 민만식, 안병영, 최명, 한배호 5명이였다. 정운무, 차기벽을 포함하면 28명 중의 7명으로 25%이다. 1970년대에 활발한 연구성과를 보였던 28명 중에서 21명은 1980년대에는 과거 같은 활발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였던 것에 비하여, 이들 7명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계속해서 많은 연구성과를 발표한 점에서 이 두 시기에 비교정치 연구를 주도하였던 연구자라 할 수 있다. 김인곤은 1970년대에 4편과 1980년대에 7편 등 11편을 발표하였으나 1980년대 7편 중에서 5편은 공동 저자 논문이였다. 민만식은 1970년대에 3편과 1980년대에 6편 합계 9편을 발표하였는데 이 중의 7편은 라틴아메리카, 중남미 지역과 국가에 관한 논문이였다. 민만식은 라틴아메리카와 중남미지역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던 시기에 이 지역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고 주도한 라틴아메리카 전문가였다. 안병영은 1970년대에 3편과 1980년대에 4편을 발표하여 두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고, 최명은 1971년에 중국에 관한 논문을 처음 발표하면서 1970년대에 3편과 1980년대에 5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20년 동안 8편의 논문을 발표한 중국 전문가였다. 한배호도 1970년대에 3편과

1980년대에 일본에 관한 3편의 논문 등 모두 7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1980년대에 가장 많은 8편의 논문을 발표한 이정복은 일본, 폴란드, 그리고 일본·한국을 대상으로 한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1990년대에 발표된 비교정치 논문은 1,063편이었다. 이 논문들을 연구자 기준으로 분류하면 가장 많은 9편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가 3명이었고 8편을 발표한 연구자는 4명, 7편을 발표한 연구자는 5명, 6편을 연구한 연구자는 13명, 5편을 발표한 연구자는 28명, 4편을 발표한 연구자는 37명, 3편을 발표한 연구자는 42명이었다. 2편을 발표한 연구자는 96명이었고 1편의 논문만 발표한 연구자는 353명이었다. 1990년대에 비교정치 논문을 발표한 전체 연구자 수는 581명이었다. 1980년대의 503명에서 581명으로 78명이 증가하였으나 1980년대에 급격하게 증가하던 추세는 계속되지 않았다.

1990년대에 비교정치 논문을 발표한 581명 중에서 다수 논문 발표자 상위 9.12%에 포함되는 연구자를 보면 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가 53명으로 명단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수 논문 발표자 상위 10%에 들기 위해서는 1950·60년대에는 4편, 1970년대에는 3편, 1980년대에는 4편 이상을 발표하면 되었으나, 1990년대에는 5편의 논문을 발표하여야 상위 9.12%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이것은 1990년대에 들면서 비교정치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의 비율이 높아진 긍정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1990년대에 다수 논문을 발표하여 상위 9.12%에 포함된 연구자는 9편을 발표한 박봉규, 이성형, 정진민, 8편을 발표한 안성호, 윤덕희, 이인성, 7편을 발표한 강원택, 노태구, 서경교, 유지훈, 이규영, 최수경, 6편을 발표한 강명구, 강휘원, 권무수, 김소중, 김장권, 김정계, 박수현, 박찬욱, 류정열, 이병도, 이은국, 정영국, 정윤무, 5편을 발표한 강문구, 고상두, 고세훈, 고재남, 권문술, 김경숙, 김재철, 박은홍, 백창재, 서보근, 손명권, 신명순, 양길현, 양동훈, 양승윤, 양승합, 이상식, 이영우, 이은구, 이항재, 이홍섭, 임성호, 장공자, 전홍찬, 조수성, 진영재, 차상호, 하상식, 홍순남 53명이었다. 1980년대에는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가 8편을 발표한 이정복 한 명이었으나 1990년대에 논문 편수가 1편 많은 9편으로 증가하였고 연구자도 박봉규, 이성형, 정진민 3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2>에서 보면, 1980년대에 다수 논문을 발표를 하였던 55명 중에서 1990년대에도 상위 9.12%에 포함된 연구자는 정윤무, 권무수, 안성호, 윤덕희, 이성형, 장공자, 신명순의 7명으로 12.73%였다. 이처럼 1980년대에 활발한 연구를 바탕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던 연구자들의 12.73%만 1990년대에도 계속해

서 많은 논문을 발표한 것은, 20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많은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는 많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정윤무는 1990년대에도 6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다수 논문 발표자 상위 9.12%에 포함되었는데, 정윤무는 1990년대 말까지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였다. 권무수는 영국과 유럽에 관한 논문을 주로 발표하였으며 안성호는 동유럽과 루마니아·불가리아, 폴란드를 대상으로 민주화, 민족문제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윤덕희도 동유럽과 사회주의국가의 정치변화에 관한 논문을 주로 발표하였으며 이성형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관한 논문을 주로 발표하였다. 장공자는 중국에 관한 논문만을 발표한 중국 전문가이며 신명순은 폴란드, 미국·캐나다·영국·한국 등을 대상으로 정당, 선거, 민주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1990년대에 가장 많은 논문 9편을 발표한 박봉규는 제3세계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민주화, 민주주의의 공고화, 민군관계 등에 관한 논문을 주로 발표하였다. 정진민은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동구 등을 대상으로 정당과 정당정치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정당 전문가이다. 이인성은 러시아 관련 논문을 주로 발표한 러시아 전문가였다.

1990년대에 다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들을 이전의 시기와 비교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전공하는 지역이나 주제에 관련된 논문을 집중적으로 발표한 연구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한 점이다. 연구대상 지역이나 국가 면에서는 동유럽,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필리핀과 태국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문들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소련의 붕괴와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국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이 증가한 것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정치경제에 관한 관심 증가와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경제적 저발전 상황에 관한 세계 비교정치학계의 관심 증가에 따른 추세로 볼 수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관한 논문 증가는 동남아시아 전공자의 증가, 동남아시아 학회설립과 논문집 발간, 1990년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나타난 권위주의체제의 붕괴와 민주화에 따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이전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 경향이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괄적 정치 상황을 소개하던 수준이었던 차원을 벗어나 특정 국가나 지역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하는 지역 전문가들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으로, 비교정치 연구에서 새롭게 나타난 긍정적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민족주의, 민주화, 선거구획정, 정당과 정당정치, 정치적 경기순환주기 등의 주제를 집

중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의 수가 증가한 것도 긍정적 변화였다. 이 시기에 특정 국가나 지역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지역 전문가로는 안성호·윤덕희·이규영(동유럽), 강명구·이성형(라틴아메리카), 김소중·김재철·김정계·장공자(중국), 이인성·박수현(러시아), 유지훈(독일), 류정열(중동), 김장권(일본), 이병도(태국), 서경교(필리핀과 태국)가 있다.

1990년대 비교정치 연구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1년에 3편 또는 4편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점이다. 서경교(1994a; 1994b; 1994c; 1994d)는 1994년 한 해에 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박봉규(1998a; 1998b; 1998c; 1998d)도 1998년에 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 해에 3편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는 이성형(1991년), 신명순(1995년), 정진민(1996년), 박봉규(1997년), 강휘원(1998년), 고상두(1998년), 손병권(1999년), 강원택(2000년), 조성대(2000년), 진영재(2000년), 최태강(2000년) 11명이었다. 198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연구자가 1년에 한 편이나 아니면 여러 해에 한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던 이전의 추세에 비교하면 커다란 변화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들의 연구력이 크게 증진되었음을 나타내는 긍정적 변화였다.

VI. 2000년대와 2010년대의 비교정치 연구자 분석

2000년대가 되면서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는 1990년대와 다른 큰 변화를 나타내었다. 먼저 발표 논문 편수에서 1990년대에는 1,063편이던 것이 2000년대에는 2,142편으로 2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발표된 논문 편수가 비슷한 숫자였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였다. 논문 편수의 증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2000년에 들면서 대학의 학문풍토가 변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대학의 교수충원이나 교수 승진에서 연구업적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기 시작하였고 학술진흥재단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학술평가 기준의 제정과 학술 활동 지원, 그리고 세계 대학 평가 순위 발표 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정치학과와 비교정치학과에서도 연구자의 논문 발표 편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0년대에 발표된 2,142편의 논문들을 연구자 기준으로 조사하면 가장 많은 37편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가 1명이었고 23편 발표가 2명, 21편 발표가 1명, 19편 발표가 1명, 18편 발표가 1명, 17편 발표가 2명, 16편 발표가 6명, 15

편 발표가 1명, 14편 발표가 6명, 13편 발표가 2명, 12편 발표가 5명, 11편 발표가 4명, 10편 발표가 11명, 9편 발표가 3명이었다. 8편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는 17명, 7편을 발표한 연구자는 17명, 6편을 발표한 연구자는 30명, 5편을 발표한 연구자는 33명, 4편을 발표한 연구자는 42명, 3편을 발표한 연구자는 78명이었다. 2편을 발표한 연구자는 120명이었고 1편의 논문만 발표한 연구자는 413명이었다. 이 시기에 비교정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의 전체 수는 796명이었다.

2000년대에 다수 논문 발표자 상위 10.3%에 포함되는 많은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는 80명이었으며 이 범위에 들기 위하여서는 1990년대보다 두 편이 더 많은 7편을 발표해야되었다. 이것은 다수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 사이에서는 1990년대에 비하여 더 많은 논문을 발표하는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1990년대에는 10편 이상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가 한 명도 없었으나 2000년대에는 33명이나 되었고 가장 많은 37편의 논문을 발표한 이동운 외에도 20편 이상의 논문 발표자가 4명이었으며 11편부터 19편까지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가 28명이었다.

1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박은홍과 임성호 2명¹¹⁾을 제외한 모든 연구자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에 처음으로 비교정치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한 신진 연구자인 점이다. 이들은 정치학계에 입문하면서부터 많은 비교정치 논문을 발표하였기에 이들 대다수는 정치학자로서의 경력을 시작할 때부터 연구에 대한 열정과 능력 그리고 자질을 갖춘 연구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신진 연구자 중에서 다수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관한 전문 지식을 터득한 기반을 갖추었기 때문에 많은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에 다수 논문 발표자 상위 9.12%에 포함되었던 53명 중에서 2000년대에도 계속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상위 10.3%에 포함된 연구자는 강원택, 강휘원, 고상두, 박은홍, 서경교, 손병권, 안성호, 이규영, 이병도, 임성호, 조수성의 11명으로 53명 중의 20.75%였다. 이들은 1990년대와 2000년대의 20년 동안 한국에서 비교정치 연구와 논문 발표에 앞섰던 연구자들이다. 나머지 45명의 연구자가 1990년대에는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으면서도 2000년대에는 다수 논문 발표자 상위 10.3%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20년의 기간 동안 활발하게

11) 박은홍은 1994년에 첫 비교정치 논문을 발표하였고 임성호는 1996년에 첫 비교정치 논문을 발표하였다.

연구하고 계속해서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정치학계에 처음 입문할 때에는 열성적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지만 학계에서 연륜이 쌓이고 직업상 안정을 이루게 되면서 신진 학자 때와 같은 열정으로 연구를 계속하는 연구자가 많지 않음을 보여준다.

강원택은 1990년대에 7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2000년대에는 영국, 아일랜드, 호주, 유럽, 서유럽, 영국·독일, 한국·일본에 관한 논문 9편을 발표하였다. 강휘원은 1995년에 미국의 선거구제 개혁에 관한 논문을 처음 발표하면서 1990년대에 6편을 발표하였고 2000년대에 선거구획정에 관한 이론적 논문과 일본, 한국·일본, 한국·영국의 사례를 분석한 논문 7편을 발표하였다. 고상두는 1996년에 러시아 경제개혁과 정치·사회구조의 변화에 관한 논문을 처음 발표하면서 러시아와 동유럽에 관한 논문을 5편 발표하였고 2000년대에는 독일, 독일·한국, 러시아, 프랑스, 유럽연합 등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박은홍은 1994년에 첫 논문을 발표하면서 1990년대에 5편과 2000년대에 태국, 태국·인도네시아, 태국·필리핀, 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관련 논문을 15편 발표하였다. 서경교는 1990년대에 7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2000년대에도 필리핀 관련 논문에 더하여 아르헨티나, 칠레, 칠레·아르헨티나 관련 논문 등 16편을 발표하였다. 손병권은 1998년에 논문을 처음 발표한 이후 2000년대에도 미국의 대통령, 의회, 선거, 이익집단, 예비선거, 연방제 등에 관한 16편의 논문을 발표한 미국 전문가이다. 1990년대에 1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던 안성호는 2000년대에 우크라이나, 동유럽 등에 관한 논문 10편을 발표한 동유럽 전문가이다. 이규영은 1995에 폴란드를 관한 논문을 처음 발표한 이후 2000년대에 독일, 동유럽, 중부유럽, 호주에 관한 논문 10편을 발표한 독일·동유럽 전문가이다. 이병도는 1993년에 태국 관련 논문을 처음 발표하면서 태국에 관한 논문을 1990년대에 6편, 2000년대에 8편 발표한 태국 전문가이다. 임성호는 1996년에 첫 논문을 발표한 이후 1990년대에 5편의 논문과 2000년대에 미국에 관한 논문 10편 등 13편의 논문을 발표한 미국 전문가이다. 조수성은 1993년에 중국에 관한 논문을 처음 발표한 이후 중국에 관한 논문만을 1990년대에 5편, 2000년대에 10편 발표한 중국 전문가이다.

2000년대에 정치학계에서 비교정치 연구를 시작하면서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다수 논문 발표 상위 10.3%에 포함된 연구자들은 37편의 논문을 발표한 이동윤을 비롯하여, 23편을 발표한 고선규, 조영남, 21편을 발표한 가상준, 19편을 발표한 이옥연, 18편을 발표한 이현우, 17편을 발표한 이정남, 박철희, 16편을 발표한 안승국, 이기완, 이이범, 정병기, 14편을 발표한 김면희, 김성진, 김종범,

신유섭, 유왕중, 최정욱, 13편을 발표한 유달승, 12편을 발표한 강봉구, 김홍구, 남종호, 박광득, 유진숙, 11편을 발표한 엄기홍, 이준한, 장지향, 홍재우, 10편을 발표한 금상문, 김신규, 문우진, 서현진, 윤용희, 이상훈, 조성대, 한병진, 9편을 발표한 이순주, 정상률, 8편을 발표한 고경희, 곽진영, 김욱, 김인성, 김준석(동국대), 박종평, 서상현, 신두철, 안병진, 유성진, 이민자, 이재현, 장덕준, 전병곤, 정연정, 최영철, 7편을 발표한 고경민, 권혁용, 김용복, 김형철, 박정호, 서동주, 송석원, 안용훈, 오항미, 우평균, 이동률, 조이환, 조진만, 한양환, 황인원이 있다.

2000년대에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이동윤의 37편은 1년에 평균 3.7편의 논문을 10년 동안 계속해서 발표할 때에 가능한 숫자로, 1955년부터 2020년까지의 65년 기간 동안 한 연구자가 10년 동안 발표한 가장 많은 논문 편수였다. 또한 이동윤은 1990년대에 2편, 2000년대에 37편, 2010년대에 7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전체 발표 논문이 46편으로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이다. 고선규는 일본의 선거와 정당, 지방분권, 정치참여 분야의 일본 전문가이며 조영남은 중국의 정치 지도자, 정치개혁, 선거, 입법정치, 국가-사회관계 분야의 중국 전문가이다. 가상준은 미국정치 전문가이며, 이옥연은 연방제, 연방주의에 관한 논문을 주로 발표하고 있다. 이현우는 미국 전문가이며 이정남은 중국 전문가, 그리고 박철휘는 일본 전문가이다. 안승국은 민주화에 관한 논문을 주로 발표하였고 이기완은 일본 전문가이다. 이이범도 일본 전문가이며 정병기는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을 주로 연구한 유럽 전문가이다. 김면희는 독일 전문가이며 김성진은 러시아 전문가이다. 김종법은 한국의 비교정치학계에서 이탈리아 정치를 전공한 첫 번째 정치학자이다. 신유섭은 미국 전문가이며 유왕중은 필리핀과 중동 전문가이다. 최정욱은 인도, 인도네시아, 미국,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 정당체계, 경제위기, 민주주의 공고화, 정치폭력 등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유달승은 한국 비교정치학계의 유일한 이란정치 전문가이다. 강봉구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 관한 논문을 주로 발표하였다. 김홍구는 1991년에 태국에 관한 논문을 처음 발표한 이래 동남아, 태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동남아시아 전문가이다. 남종호는 중국 전문가이며 박광득도 중국 전문가이다. 유진숙은 러시아와 독일 전문가이다.

엄기홍은 방법론과 미국정치 전문가이며 이준한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화, 투표제도, 선거 등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장지향은 터키와 중동 전문가이다. 홍재우는 합의제 민주주의, 다수제 민주주의 등의 주제로 가나, 벨기

에 등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금상문은 레바논, 알제리, UAE 관련 논문을 주로 발표한 중동 전문가이며 김신규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전문가이다. 문우진은 공간모형, 정치거래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등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고 검증하는 논문을 주로 발표하였다. 서현진은 미국 전문가이며 윤용희는 미국, 영국에 관한 논문 발표하였다. 이상훈은 일본 전문가이며 조성대는 미국 전문가이다. 한병진은 미국, 미국·한국, 러시아·북한, 중국 등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2000년대에 다수 논문 발표자 상위 10.3%에 포함된 연구자들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특정 국가나 지역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그 국가나 지역에 관련된 논문만을 주로 발표하는 국가·지역 전문가가 급격하게 증가한 점으로 1990년대에 시작한 변화가 더욱 강화되었다. 상위 10.3% 연구자 80명 중에서 특정 국가나 지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지역 전문가는 61명으로 76.25%를 차지하였으며 비교정치학의 이론이나 중요한 주제, 또는 방법론 위주로 연구하는 연구자는 23.75%에 불과하였다. 특정 국가나 지역 전문가 중에서 미국 전문가는 가상준, 김준석, 서현진, 손병권, 신유섭, 안병진, 엄기홍, 유성진, 이현우, 임성호, 조성대의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러시아 전문가로 강봉구, 김성진, 김인성, 서동주, 우평균, 장덕준 6명과 러시아와 동구 전문가 박정호, 동구 전문가 안성호, 체코와 슬로바키아 전문가 김신규 등 9명이었다. 일본 전문가는 고선규, 김용복, 박철희, 송석원, 이기완, 이이범, 이민자, 이상훈 8명이었고, 중국 전문가는 남정호, 박광득, 이동률, 이정남, 전병곤, 조수성, 조정남 7명이었다. 서유럽의 경우에는 독일 전문가 고상두, 김면희, 신두철, 오향미, 이규영과 독일·러시아 전문가 유진숙, 이탈리아 전문가 김종범, 유럽 전문가 정병기 8명이었다. 중동 전문가는 금상문, 박종평, 유왕중, 장지향, 정상률, 최영철 6명과 이란 전문가 유달승의 7명이었다. 동남아시아 전문가는 박은홍, 서경교, 이동윤과 말레이시아 전문가 이재현과 황인원, 태국 전문가 김홍구와 이병도 7명이었다. 라틴아메리카 전문가는 이순주와 브라질·포르투갈 전문가 조이환 2명이었고 아프리카 전문가는 한양환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전문가 서상현의 2명이었다. 이외에 인도 전문가 고경희가 있다. 이 시기에 특기할 점은 그동안 관심이 적었던 아프리카지역과 인도, 이란, 이탈리아, 포르투갈, 체코, 슬로바키아를 전공하는 비교정치 지역 전문가가 배출된 점이다.

2010년대에 발표된 비교정치 논문은 2,099편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증가하던 추세가 바뀌어 2000년대의 2,142편에서 43편이 감소하였다. 감소한 논문 편수가 많지는 않았으나 그동안의 증가 추세가 감소로 바뀐 것은 새로운 변화라 할

수 있다. 2,099편의 논문을 연구자 기준으로 조사하면 가장 많은 28편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가 1명이었고, 22편 발표가 1명, 20편이 1명, 19편이 2명, 18편이 1명, 17편이 4명, 15편이 2명, 14편이 3명, 13편이 5명, 12편이 4명, 11편이 7명, 10편이 6명, 9편이 11명, 8편이 13명, 7편이 19명, 6편이 23명, 5편이 34명, 4편이 65명, 3편이 93명, 2편이 151명, 그리고 1편을 발표한 연구자가 547명이었다. 이 기간에 비교정치 논문을 발표한 전체 연구자 수는 993명으로 2000년대의 796명에 비하면 197명이 증가하였다.

2000년대에는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의 논문 편수가 37편이었는데 2010년대에는 28편인 점에서 2010년대의 비교정치 논문 발표가 저조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0년대에는 다수 논문 발표자 상위 10%에 포함되기 위하여서는 7편의 논문 발표가 필요하였는데 2010년대에는 6편의 논문만 발표하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2010년대의 연구가 약간 저조하여진 양상을 보인다.

2000년대에 다수 논문 발표자 상위 10.3%에 포함되었던 80명 연구자 중에서 2010년대에도 상위 10.37%에 포함된 연구자는 36명이었다. 이것은 2000년대에 열심히 연구하여 다수 논문 발표자 상위 10%에 들었던 연구자의 45%가 2010년대에도 계속해서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상위 10.37%에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다. 20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많은 논문을 발표하는 이러한 비율은 1970년대에는 36.36%였고 1980년대에는 25%, 1990년대에는 12.73%, 그리고 2000년대에는 20.75%였다. 2010년대에 이 비율이 45%로 괄목할만한 증가를 한 것은,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자들이 2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비교정치 연구에 관한 열정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 분야에서 연구와 논문 발표에 관한 연구 분위기가 높아졌음을 나타낸다. 2000년대에 이어 2010년대에도 계속해서 다수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연구자는 정병기, 고상두, 조영남, 고선규, 권혁용, 김면희, 김신규, 김종법, 서경교, 김성진, 박은홍, 이옥연, 한병진, 손병권, 안용훈, 이정남, 정상률, 김홍구, 유진숙, 황인원, 문우진, 유성진, 이이범, 김형철, 신두철, 우평균, 이규영, 이동운, 이민자, 임성호, 장지향, 홍재우, 김용복, 박철희, 이현우, 조성대의 36명이다. 이들은 2000년 이후 20년 동안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를 이끌어 오고 있는 대표적 비교정치 연구자로서 이들 중 대부분은 2022년 현재에도 비교정치 분야 논문을 활발하게 발표하고 있기에 앞으로의 10년 기간에도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 발전에 공헌할 연구자들이다.

이들 중에서도 김홍구는 198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의 30년 동안, 안성호는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의 30년 동안, 그리고 고상두, 박은홍, 서경교, 손병권, 이규영, 임성호는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의 30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다수 논문 발표자 상위 10% 정도에 포함되는 많은 논문을 계속 발표하여 온 비교정치 연구의 대표자들이다. 이에 앞서 정운무는 1965년부터 1996년까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의 40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다수 논문 발표자 상위 10%에 포함되는 많은 연구업적을 남겼었다. 같은 시기에 활동한 차기벽도 1961년부터 1990년까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의 30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다수 논문 발표자 상위 10% 안에 포함되는 많은 연구업적을 남긴 비교정치 분야의 대표적 학자였다.

2010년대에 다수 논문 발표자 상위 10.37%에 포함된 103명 중에서 가장 많은 28편을 발표한 정병기는 2000년대에 16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2010년대에는 정당, 선거, 코포라티즘, 포퓰리즘 등의 주제에 관하여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등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유럽 전문가이다. 오창룡은 프랑스 관련 논문 15편과 벨기에 관련 논문 3편 등을 발표한 프랑스 전문가이다. 황병하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UAE, 시리아, 레바논 등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중동 전문가이다. 권혁용은 2000년대에 7편의 논문과 2010년대에 프랑스, 대만, 베트남,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의 다양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용민은 영국, 일본에 관한 논문 17편을 발표하였고 조원빈은 아프리카, 가나, 레소토 관련 논문을 발표한 아프리카 전문가이다. 김신규는 2000년대에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관한 1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에는 준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슬로베니아에 관한 논문들을 포함하여 15편을 발표하였다. 지은주는 대만에 관한 논문을 2000년대에 5편, 2010년대에 9편 등 15편을 발표한 대만 전문가이다. 홍미정은 2000년대에 요르단 관련 논문 6편과 201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예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등에 관한 논문 14편을 발표한 중동 전문가이다. 이광수는 중국, 대만, 중국·대만, 인도 관련 논문 13편을 발표하였고 이양호는 중국, 브라질, 아프리카 국가들에 관한 논문을, 장선화는 스웨덴, 프랑스, 이집트, 스웨덴·핀란드,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스웨덴·독일·영국, 핀란드·벨기에·스페인·아일랜드, 뉴질랜드·영국·한국 등을 대상으로 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의석은 일본에 관한 논문 13편을 발표한 일본 전문가이다.

하세헌은 1998년에 논문을 처음 발표한 이후 일본, 일본·미국, 한국·스웨덴,

프랑스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서정진은 미국, 한국·미국에 관한 논문을 주로 발표하였고 유은하는 중국 관련 논문 11편을 발표한 중국 전문가이다. 정상률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중동, 아랍 등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중동 전문가이다. 주장환은 중국 전문가로 중국, 러시아의 정치 엘리트들 주로 분석하였다. 김민정은 프랑스 관련 논문을 주로 발표하였고 이주경은 일본 관련 논문 10편을 발표한 일본 전문가이다. 장준영은 미얀마 관련 논문 10편을 발표한 미얀마 전문가이다. 홍태영은 프랑스에 관한 논문을 주로 발표하였다. 경제희는 일본 전문가이며, 박경미는 영국, 북아일랜드, 프랑스·브라질, 폴란드, 헝가리, 동서독, 불가리아·체코·헝가리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박정오는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루마니아·북한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다. 신재혁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 관련 논문들과 59개 국가와 145개 국가를 다국교차국가분석으로 연구한 논문 등을 발표하였다. 윤은기는 캐나다, 캐나다·한국, 아시아, 개발도상국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대진은 일본, 영국, 아시아, 구 동구공산권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민주화, 부패 등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장세호는 러시아 전문가이며, 정희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조홍식은 프랑스,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등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지영은 헝가리 전문가이며, 서지원은 인도네시아 전문가이다. 송경재는 미국, 한국·일본, 한국·필리핀, 한국·미국, 한국·대만, 한국·미국·일본 관련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유성진은 미국 전문가이며 이종곤도 미국 전문가이다. 이한수는 미국 관련 논문을 주로 발표하였고 이한우는 베트남 전문가이다. 장승진은 미국 관련 논문을 주로 발표하였고 장윤미는 중국 전문가이다. 정주연은 중국 관련 논문을 주로 발표하였다¹²⁾.

2010년대에 다수의 비교정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들도 특정 국가나 지역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2010년대에 새롭게 중국 전문가로 등장한 연구자는 유은하, 신봉수, 장윤미가 있고 일본 전문가로는 경제희, 이주경, 한의석이 있다. 미국 전문가로는 이소영, 러시아 전문가는 장세호가 있다. 동남아 지역의 개별 국가 전문가로는 서지원(인도네시아), 정연식(캄보디아), 이한우(베트남), 장준영(미얀마)이 있다. 프랑스 전문가로는 오창룡, 김민정이 있고, 헝가리 전문가로는 김지영이 있다. 브라질 전문가로는 김영철, 중동 전문가로는 홍미정과 황병하, 아프리카 전문가는 조원빈이 있다. 대만 전문가는 지은주가 있다. 이처럼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다양한 국가와

12) 논문 지면의 제약으로 7편과 6편을 발표한 연구자들에 관한 설명은 생략한다.

지역의 정치를 전공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또 이들이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교정치 연구가 훨씬 더 다양해지고 다원화되면서 전문화되는 발전이 이루어졌다.

VII. 결 론

본 연구는 195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에서 발표된 비교정치 연구에서 나타난 변화와 발전을 연구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는 첫 번째 시기인 1955년부터 1980년까지와 두 번째 시기인 1981년부터 2000년까지, 그리고 세 번째 시기인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세 시기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비교정치 연구의 양적인 면에서 보면, 첫째 시기에는 547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이 논문들을 집필한 연구자의 수는 327명이었던 것이, 두 번째 시기에는 논문 편수가 1,965편으로 많이 증가하였고 연구자의 수도 1,084명으로 많이 증가하였다. 세 번째 시기에는 연구 편수는 4,241편으로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연구자 수도 1,789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연구의 수준과 차원에서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 명의 연구자가 10년 기간에 가장 많이 발표한 논문 편수를 보면 1950·60년대에는 6편이고 1970년대에는 8편이던 것이, 1980년대에는 8편, 1990년대에는 9편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37편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10년대도 28편으로 매우 많은 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부터 연구자들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비교정치 연구가 크게 활성화되고 연구 분위기가 고양된 긍정적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에서 긍정적 변화가 있었는가를 또 다른 면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20년의 오랜 기간에 계속해서 많은 논문을 발표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몇 년 동안 열심히 논문 발표하다가 10년 정도가 지난 후에는 논문 발표가 저조하여지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0년 동안 다수 논문 발표 상위 10%에 포함되는 많은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 중에서 다음 10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같은 수준의 많은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의 비율은, 1970년대에는 36.6%, 1980년대에는 25%, 1990년대에는 12.73%, 2000년대에는 20.75%로 크게 높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대에는 이 비율이 45%로 대폭 증가하여 20년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해서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들의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

다. 2000년부터 한 명의 연구자가 10년 기간 동안 발표하는 논문의 편수가 파격적으로 증가하였고, 동시에 20년의 오랜 기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많은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의 수가 많이 증가한 것은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에서 연구가 활성화되고 연구에 관한 열정도 높아진 긍정적 발전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에서 2000년부터 나타난 새로운 변화의 또 한 가지는 특정 국가나 지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국가나 지역에 관련된 논문을 중점적으로 발표하는 연구자들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지역 전문가의 등장과 수적 확대는 2000년대 이전부터 있었던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동남아 전문가에 더하여, 러시아, 동유럽, 중동,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 전문가만이 아니라 동남아나 동유럽, 중동 지역의 특정 국가 전문가가 등장한 점에서, 한국에서의 비교정치 연구의 연구범위가 확대되고 지역연구의 다양성이 확대된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변화였다.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는 1980년대부터 양적으로 대폭 증가한 데 더하여 2000년대부터는 연구의 대상이 다양해지고 오랜 기간동안 연구와 논문 발표에 관한 열정과 노력이 계속되는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발전 추세는 2020년대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록>

분석 자료 수집을 위하여 조사한 학술논문집 목록

개발논총, 경남법학, 경희법학, 공공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국방연구, 국정관리연구, **국제관계연구**(서울대, 충북대), 국제문화연구, 국제법학회논총, 국제정치논총, 국제지역연구(서울대, 한국외대), 글로벌정치연구, 남아시아연구, **논문집**(가야대학교, 강원대 연구논문집,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원전문대, 경주대, 경희대, 공사, 관동대, 광운대, 광주경상대, 광주보건전문대, 국민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교육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대학원, 마산대, 명지대, 목원대, 부산교육대, 부산대, 부산대 교양과정부, 상명대, 서경대, 서울교육대, 서울대, 서울대 교양과정부, 서울여대, 서원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대학원, 신라대, 울산대, 원광대, 인천교대, 전북대 교양과정부, 전주교대, 전주대, 제주대, 중앙대, 진주교대, 진주산업대, 창원대, 청주대, 춘천교대, 충남대, 충남대 법률행정연구소, 충북대, 평택대, 한경대, 한국항공대, 한신대, 한양대, 한국외대), **대학원논문집**(경기대, 동아대, 동국대), 대동문화연구, 대만연구, 동국논총, 동남아연구, 동남아시아연구, 동북아연구, 동서연구, 동아논총, 동아문화, 동아법학, 동원논집, 동유럽발칸연구, 라틴아메리카 이슈, 락원지(樂園誌), 러시아연구, 러시아지역연구, 미국학, 미국학논문집, 미국헌법연구, 민족과 문화, 민족발전연구, 법경논총, 법대논총, 법률행정논문집, **법정논총**(국민대, 대구대, 동국대, 중앙대), **법정학보**(이대, 전북대, 청주대), 법학논집, **법학논총**(단국대, 조선대, 한양대), **법학연구**(부산대, 충남대), 법학행정논문집, 북미주학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비교법학, 사회개발논총, **사회과학**(경북대, 성균관대),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사회과학논문집**(대전대, 효성여대), **사회과학논문집**(동아대, 신문대, 연세대, 울산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사회과학논총**(가톨릭관동대, 강남대, 건국대, 경희대, 대구가톨릭대, 명지대, 부산대, 부산외대, 숭실대, 안동대, 전남대, 전주대, 한양대), 사회과학논평,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사회과학연구**(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희대, 광주대, 국민대, 대구대, 대구효성가톨릭대, 덕성여대, 동국대, 목원대, 상명대, 서강대, 서원대, 성결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안양대, 영남대, 인천대, 장안전문대, 조선대, 중앙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남대, 호서대),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교육과학연구, 서석사회과학논총, 성균법학, 세계정치, 세계지역연구논총, 슬라

브연구, 슬라브학보, 시민사회와 NGO, 아랍어와 아랍문학, 아세아연구, 아태연구, 안보연구, 연구논문집, 연구방법논총, 연세논총, 연세사회과학연구, 연세행정논총, **유럽연구**(동국대, 한국유럽연구학회), 윤리연구, 이문논총, 인문사회과학논문집, 인문사회과학논총, **인문사회과학연구**(공주대, 호남대), **일본연구**(부산대, 한국외대, 명지대), 일본연구논총, 전주대 논총, 정경논집, 정경논총, 정정(政正: 건국대), 정책과학논총, 정치논총, 정치학논집, 정치학보, 종합논문집, 중국, 중국과 중국학, 중국문제연구, 중국사회과학논총, **중국연구**(건국대, 단국대, 한국외대), **중국학논총**(고려대, 한국중국문화학회), 중국학연구, 중남미연구, 중동문제연구, 중동연구, 중소연구, 지역과 세계, 지역발전연구, 지중해지역연구, 청대학술논집, **통일논총**(경성대, 동의대, 부산대, 부산산업대, 숙명여대, 창원대), **평화연구**(경북대, 고려대), 통합유럽연구, 포르투갈-브라질연구, 학술논문집, 학술논총, 학술지, 한국문화연구원논총, 한국사회과학, **한국사회과학연구**(계명대, 청주대), 한국사회연구, 한국아프리카학회지, 한국이슬람학회논총,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중동학회논총, 한국통일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행정논집, **행정논총**(경기대, 서울대, 원광대 행정학과), 행정대학원연구논총, 행정학논집, 현대이념연구, 현대정치연구, 현대중국연구, *Asian Journal of African Studies*(아프리카연구), EU 연구,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Journal of Asia-Pacific Affairs*, *Oughtopia*.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구범모. 1967. “비교정치학 20년의 반성.” 『한국정치학회보』 2, 7-75.
- 김계수. 1967. “한국정치학의 분야.” 『한국정치학회보』 2, 169-181.
- 김계수. 1969. 『한국정치학: 현황과 경향』. 서울: 일조각.
- 김기범. 1955. “대통령책임제와 내각책임제.” 『화백』 1, 83-93.
- 김영국. 1977.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학의 발전.” 『한국정치학회보』 11, 39-49.
- 김영두. 1955. “삼권분립제도의 근본 문제: 헌법이 국가다-아리스토텔레스.” 『고려대학교 50주년 기념논문집』 321-349.
- 김행자. 1978. “한국비교정치 연구의 현재와 미래: 이상주의적 정치학도의 하나의 견해.” 『한국정치학회보』 12, 39-61
- 김형수. 1955. “근대 독일과 이태리의 정치적 변천.” 『법정논총』 1, 33-48.
- 박기덕. 2008. “한국 비교정치연구 60년: 태동에서 사회과학으로의 발전과정 조명.” 『한국의 학술연구: 정치학·사회학』. 서울: 대한민국학술원, 205-222.
- 박봉규. 1998a. “민주화의 동학.” 『공사 논문집』 41, 1-20.
- _____. 1998b. “외채위기사 개혁정책의 민주화への 함의.” 『공사 논문집』 42, 1-22.
- _____. 1998c. “민군 관계의 발전 모델 연구: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비교.” 『한국정책학회 기타자료』 209-237.
- _____. 1998d. “제3의 민주화 정권에서의 이익대표체계와 민주적 공고화: 스페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정치정보연구』 1(1), 281-308.
- 박일경. 1955. “정부형태론.” 『법조』 3(8), 1-19.
- 서경교. 1994a. “군부의 정치퇴진에 관한 비교 연구: 태국, 필리핀, 한국의 경우.” 『한국정치학회보』 27(2), 291-313.
- _____. 1994b. “필리핀 군부의 정치적 역할: 마르코스의 군부 정치화 과정을 중심으로.” 『민족과 문화』 2, 117-136.
- _____. 1994c. “태국의 민주화 과정(1980~1992)에 대한 일고찰.” 『한국태국 학회논총』 5, 157-173.
- _____. 1994d. “태국군부의 정치개입 원인에 관한 고찰.” 『동남아시아연구』 3(1), 127-148.

- 서원우. 1955. “국가기능 확대의 이론과 실제(상).” 『법정논총』 1, 59-76.
- 서중석. 1959. “8·15해방 후의 한국 정치학계.” 『한국정치학회보』 1, 185-189.
- 신명순. 2013. “한국정치학에서 비교정치연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정치학회60년사(증보분) 2003-2013』. 서울: 한국정치학회, 152-199.
- 안정국. 2015. “한국 중동학 현황에 관한 연구: 연구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36(2), 187-213.
- 윤경우. 1972. “The Conservatism of Ruling Class in Northern Nigeria.” 『건국대 교수논단』 1(1), 34-46.
- 조효원. 1955. “민주주의의 가치.” 『화백』 1, 62-68.
- 차기벽. 1961. “후진지역의 민족혁명.” 『성대 논문집』 6, 87-102.
- 차기벽. 1990. “비교적 시각에서 본 동아시아 민족주의.” 『동아연구』 20, 197-206.
- 최명. 1979. “한국의 비교정치학: 한 정치학도의 감상과 소망.” 『한국정치학회보』 13, 39-48.
- 하경근. 1963. “남아공화국의 Apartheid 정책 연구: 주로 원주민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1, 48-65.

영문 자료

- Chilcote, Ronald H. 1981. *Theories of Comparative Politics; The Search for a Paradigm*.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Wiarda, Howard J. 1993. *Introduction to Comparative Politics: Concepts and Processes*.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in Korea(1955-2020): Focused on Researchers

Myungsoon Shin ■ 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analyzes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in Korea from 1955 to 2020. The study analyzes 6,753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277 academic journals. Firstly, the number of articles was fairly low at 547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was 327 during the period from 1955 to 1980. Then it increased to 1,965 and 1,084 during the period from 1981 to 2000. It has now increased immensely to 4,241 and 1,789 from 2001 to 2020. Secondly, when we divide the research period by decade, the most productive researcher published 6 articles during the 1950·60s and 8 articles during the 1970s. The numbers were 8 articles during the 1980s and 9 articles during the 1990s. Remarkably, this number has increased up to 37 articles during the 2000s and 28 articles during the 2010s. Thirdly, when we investigate whether a productive researcher publishes a numerous number of articles consecutively over two decades, 36.6% of productive researchers during the 1950·60s continuously published a similar number of articles in the 1970s. The percentages were 25% in the 1980s, 12.73% in the 1990s, and 20.75% in the 2000s. This percentage has increased incredibly to 45% during the 2010s. In conclusi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in Korea expanded in the number of articles and researchers during the 1980s and has optimistically developed and matured into higher quantity research since 2000s.

Key Word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in Korea, researcher, 1955-2020 period, country·area study

□ 논문접수일: 2022년 7월 18일, 심사완료일: 2022년 8월 17일,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17일

